

구역부에서는 사랑방을 통하여 벨렐의 공동체가 튼튼해지며, 주님의 몸된 지체를 건강하게 이루는데 윤택유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하며 사랑방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분기별로 발간되는 소식지에 실릴 교구/사랑방 소식이나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글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고는 구역부 메일함 혹은 이메일 (SMALLGROUP@BETHELCHURCH.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 년도에 소식지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위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사랑방 구역:
 현재 교회를 중심으로 5 개의 지역 (북동, 북서, 남동, 남서, 중앙) 안에 20 개의 교구가 있으며, 68 개의 사랑방이 있습니다.

구역부 사랑방 소식지팀
 담당 목사: 조명재



백신중 담임 목사님 칼럼

우울증 이해학교를 시작하면서

지난 8 월 25 일 캘리포니아 LA 지역의 치노시에 소재한 인랜드 힐스 교회의 앤드루 스토클라인 목사가 우울증과 불안증세를 앓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30 대에 부친의 교회를 승계하여 목회하던 앤드루 목사는 목회의 중압감과 심리적인 불안에 시달리며 오랫동안 고통 당해 왔다고 합니다.

부인인 카일라 사모는 목회지를 옮기거나 목회를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앤드루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어가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불안증세는 호전을 보이지 않아서 최근 4 개월 간의 안식월을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 개월 간의 안식월 후에 앤드루 스토클라인 목사는 자신의 병을 성도들 앞에서 공개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심리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는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겪는 병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육체에 감기가 걸릴 수 있듯이,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런 마음과 정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의 보고에 따르면 타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들의 99%가 정신질환과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문화권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울증과 정신질환은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주변 사람들의 이해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벨렐교회가 우울증 이해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런 배경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을 깊이 이해하고 치료와 회복에 함께 노력할 때, 이민가정과 사회, 이민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기초가 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정신과 의사인 김면기 박사님과 전문 상담가인 조은숙 전도사님께서 강의를 담당해 주시게 됩니다. 이 훈련을 계기로 건강한 생활, 가정,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소식지는 벨렐교회 WEBSITE (WWW.BETHELCHURCH.ORG) 에서 교구/사랑방 구역 PAGE 밑에서 ELECTRONIC VERSION 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전도폭발 훈련 JUST EE



- 한상구 장로

"모든 신자는 다 전도자이다."라는 케치 프레이즈로 개인 복음사역인 전도폭발 훈련이 벨엘교회에 접목된 때는 1991년이었습니다. 벨엘의 신도들이 복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영접함으로 확실한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벨엘의 최초의 평신도 복음사역은 실제로 벨엘의 초대 담임목사님인 김상복 목사님 부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김상복 목사님이 목회자 중심의 목회를 지양하고 평신도 복음사역을 강조하시면서 시작한 평신도무장 사역의 일환으로 1984년에 "교회성장과 전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미국 전역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목사님의 강이가 끝난 후 훈련 받은 벨엘의 평신도들이 훈련생과 함께 전도 대상자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전도하는 실습을 보여줌으로써, 평신도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되었고 훗날 전도폭발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상복 목사님이 한국으로 가신 후 벨엘의 어려움이 시작되면서, 일시 중단되었던 평신도 복음사역은 1990년 몇몇 교회 지도자들과 홍성근 전도사님(현 목사님)이 EE 훈련 본부인 Florida의 Fort Lauderdale에 있는 Coral Ridge 장로교회에서 일주일 간 임상훈련을 받음으로써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훈련 후 돌아온 다음 해인 1991년, 제 1기 전도폭발 훈련을 시작으로 년 2회 훈련이 계속되면서 현재까지 46회로 이어진 Classic EE 훈련이 이제 새롭게 변신합니다. 2018년 가을 학기부터, 복음 제시가 단순화된 더 쉽고 짧은 Just EE라는 새로 만들어진 교재로 제 1기 전도폭발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Classic EE의 45분 동안의 긴 복음 제시가 20분 내외의 복음 제시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라건데 벨엘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담임목사님이 안 계실 때 뿐만 아니라, 담임목사님이 계셔도 목사님의 전도폭발 인식 부족으로 여러 번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헌신된 평신도들에 의해서 현재까지 수많은 복음 전도자를 배출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암송할 성경구절이 너무 많고 또한 숙달된 훈련자들이 복음을 전해도 45분 이상 걸리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던 Classic EE 대신에 쉽고 간편한 Just EE 교재가 새로 만들어진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2008년에 제 49차 미주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을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들, 각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전도폭발 훈련이 활성화되어 이웃교회, 애난데일에 소재한 메시아 장로교회, 그리고 볼티모어에 소재한 시온장로교회에서 훈련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남미의 페루에서 의료단기 선교와 병행하여 해외 전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벨리즈, 2009년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칼빈 신학교에서, 그리고 코스타리카, 우간다에서도 신학대학과 현지 목사님들을 상대로 현재까지 해외 전도폭발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여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도 벨엘의 새로운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해나가는 벨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방 및 사랑방장 소개

남동 3 교구 2 사랑방 - 이종진 사랑방장

호구지책과 삶 속의 성령 충만

지난 2월 2018년 사랑방모임 때 지일성 집사님이 사랑방 가족을 위해 참치 부친개를 손수 만드셨습니다. 평생을 옆지기로 함께한 지인임 집사님을 위해 감사의 선물로, 손수 만든 첫 감격의 작품을 사랑방 가족들과 나누려고 특별 기획하였던 것입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매일 밤 가족을 위한 아버지의 정성이 담긴 저의 미숙한 요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감격한 분이 누굴까요? 네, 맞아요! 바로 아내였어요. 그리고 자녀들과 두 살 먹은 손녀지요. 이 감격의 순간을 이렇게들 말합니다.

"호구지책으로 시작한 일" 지일성집사님,

"내 평생에 이런 날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지라." 지인임 집사님,

"아빠 이제 최고의 셰프! 우리 아빠 최고," 따님,

"하부지, 넌은 뭐해? 맛있다. 하부지 사랑해~~~" 귀염이 손녀딸.

아버지의 생각의 변화와 실행에 온 가족이, 특히 평생의 반려자가 모든 서운했던 마음을 지우며 환히 웃는 얼굴은, 사랑 바로 그 사랑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적 순간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이웃사랑의 첫 삽은 아내사랑과 가족사랑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집사님 가정의 부엌에선 사랑의 요리 냄새가 온 식구들의 희망의 꿈자리 자장가로 퍼져 올라갑니다.

이길용 장로님과 이영미 권사님이 섬기시는 남동 3 교구의 6개 사랑방 중 제 2 사랑방입니다. 모두 7 가정으로 성인 13 명이 구성원입니다. 오랜 역사를 이어온 사랑방으로 역대 사랑방 리더로 이재호-이순복 집사님부터 박병일-박경이집사님, 전익제-전순옥 집사님, 지일성-지인임 집사님들이 수고를 하셨고, 더불어 흥성한 집사님-홍순혜 권사님, 최동일-최혜선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그리고 금년에 합세한 신동철-조은희 집사님, 그리고 저희 이종진-이정식이 금년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벨엘에서 잠잠히 지내오다가 2016년 9월 교구 피크닉에 교구장님과 한상구 장로님의 초대와 편지와 전화로 사랑방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방 식구들의 알뜰살뜰한 배려로 사랑방에 잘 적응하였고, 김영숙 집사님의 안내로 토요새벽기도회 후 친교실에서 새로운 만남의 기쁨이 있었으며, 박경이 집사님의 봉사 참여 권유와 안내와 많은 분들과의 사귀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넓히며 즐거움과 기쁨의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늘 함께하는 사랑방 식구들의 덕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여러 사정으로 사랑방 모임을 못해온 오랜 분들께, 가족사랑의 다음으로 사회생활도 하시면서, 믿음의 식구들과 사랑방을 통해 사랑을 나눔으로 한층 더 기쁘고 즐거운 교회생활과 믿음생활이 되도록 시도해봄은 어떨까요? 처음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걸음하시고 두드리세요.

김밥 봉사 때에 옆자리의 김신정 권사님의 권유로 시작한 중보기도 훈련으로 한층 믿음 성장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너뜨림"의 새벽기도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김동우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에 저의 허술한 기도생활에 확신과 힘을 얻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으나 성령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특별한 행사나 교육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먼 나라의 행사이며, 나랑은 친숙함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과 어색함을 뛰어넘어서, 특별히 나를 위한 하나님의 초대로 생각해보심은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지난 전교회적 독서대회 때 접한 "담장을 넘어선 크리스천"에서 지금 떠오르는 부분이 있네요. 모든 교인이 선교사가 되도록 교육하는 곳이 교회라 했던가요? 저는 모든 교인이 사랑방 리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가지 부족함이 많아서 좋은 리더가 못됨을 사랑방 식구들에게 사과드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깨우침의 기회를 많이 갖게 됩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신과 믿음이 신실해질 때 더욱 힘을 실어주시심을 믿기에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되지요. 지난 모임 때 사랑방리더 교육에 모두 참석을 제안했는데, 첫 번 째로 흥성한 집사님이 청강생으로 뜻을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해준 것도 없고, 앞으로도 능력이 없어서 할 수도 없어 고민하며 생각하던 중에, 교구연합 사랑방 모임 때 조명재 목사님의 "믿음의 유산"이란 제목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다! 우리 장모님이 주신 것이 이거였어! 두고 두고 되뇌이며,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기도! 기도! 기도! 기도와 응답을 간증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 늘 함께하는 임재의 하나님, 인자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신뢰함이 대대손손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라 확신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버지들이여, 기도로 함께 시작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독후감 <윤석원 저자의 "꿈쩍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를 읽고>

- 남서 3 교구 박소연 권사

저희 벨엘 가족에게는 숨겨진 큰 보석이 있습니다. 또한 그 보석이 빛나도록 닦아주고 지켜주는 보석 지킴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보석들을 만드시고 같이 빛내시는 조물주 하나님께서입니다. "꿈쩍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의 저자 윤석원 성도와 그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많은 교인분들이 석연 형제에 관한 글이나 그가 쓴 시를 접하셨을 터이고, 또 4 부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맨 뒷자리에 휠체어를 타고 예배를 드리는 그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신 마비로 자유로운 교제가 힘든 석연 형제를 친밀히 아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리라 짐작됩니다.

저는 저희 교구에 계시는 조경식, 이용기 집사님 부부의 아들이신 석연 형제를 알게된 지는 햇수로 꽤 오래됐고, 또 너싱홈에 방문도 여러 번 하면서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였기에, 이번 책을 통해 석연 형제의 크고 작은 일상 생활의 어려움, 주님과 의 동행, 또 책의 공동 저자인 폴란드의 박수민 선교사와 오고간 이메일 편지들을 통해 석연 형제를 조금이나마 더 잘 알게 되어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석연 형제를 지키시며,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높고 깊은 오묘함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어서 감동스러웠습니다.

사실 석연 형제를 방문할 때마다 석연 형제의 미소 뒤에 숨겨진 신앙, 순수함에 감동 받음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그 꿈쩍할 수 없는 육체의 한계를 보며 그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인해 무거워지는 마음 또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차 사고로 인해 그 때의 나이보다 더 긴 세월을 침대에 갇혀 지내는 그를 보며, 아 하나님!... 하며 그를 위한 기도도 어찌해야 할지 몰라 힘들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석연 형제가 결코 불쌍함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보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꿈쩍할 수 없는 한 인간이지만, 눈으로 컴퓨터를 써서 대학공부를 마치고, 또한 신학공부를 계속하게 하시며 이제는 글을 통해 문서선교를 담당케 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일들이 가능토록 그 옆에 도움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수많은 목숨의 위태로운 순간들을 이기고 넘기게 하신 주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며 저는 책을 읽는 내내 감개무량했습니다. 내 교회 가족 중에 이런 보석을 심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몸은 성하고 자유롭지만 혹시 나의 영혼은 오히려 묶이고 무디어져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존재는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석연 선교사님의 육체의 고통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던지시는 말씀, 그 교훈을 늘 잊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다짐해봅니다.

